

한국쌘벤, 첫 해외 수출 쾌거

방글라데시에 '쌘콕스' 수출... 100만불 수출탑 도전

한국쌘벤이 콕시둡증 예방 치료제인 '쌘콕스'를 해외 시장에 첫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쌘벤(주)대표이사 김달중은 방글라데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28일 1톤의 쌘콕스 제품을 출고, 지난 3월 6일 부산항을 통해 첫 선적을 함으로써 수출의 문을 열었다.


한국쌘벤(주)은 이번 수출을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며 많은 바이어들을 만났다. 수출의 결실을 맺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해 수출팀장, 팀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씩 바이어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동남아, CIS국가 등 조금씩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불 수출탑을 도전하기 위해 한걸음 다가섰다.

한국쌘벤 김달중 대표



이사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성경구절처럼 한국섬벤(주)은 수출 후발주자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포부와 비전은 어떠한 회사보다도 크다”며, “올해를 수출 원년의 해로 삼아 앞으로 동물약품업계 1위를 목표로 달려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도전하고 노력하는 한국섬벤의 귀추를 주목해 본다. 

주목! 이 제품 **수출품인 '섬콕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섬콕스 주성분인 톨트라주릴은 콕시툼에 감염된 닭의 면역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콕시툼원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며, 콕시툼원충의 무성생식단계와 유성생식단계에서 호흡대사가 이루어지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와 핵분열을 저해하고, 유성생식단계에서 벽형성체의 발달을 억제하여 살충적으로 작용하는 제품이다.

■ **섬콕스의 특징점**

- 콕시툼증 원충에 대해 광범위한 효과
- 혈변, 충란 배설, 병변 감소
- 음수에 희석하는 간편한 사용법
- 증체율 증가로 인한 수익개선
- 내성이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 **성분 및 함량(본제 1ℓ)**

- Toltrazuril 25g

■ **용법 및 용량**

- 음수 1ℓ 당 본제 1mℓ 비율로 섞어 2일간 투약 후 5일 경과하여 1회 반복 실시

■ **효능 및 효과**

- 닭의 콕시툼증 예방 및 치료

■ **저장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1~30℃)에서 보관

■ **휴약기간** : 닭 16일

■ **금기사항** :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하지 말 것.

